

혁명의 기표와 기의*

— ‘리이저 대자보(李一哲大字報)’와 시대전환의 논리에 관한 고찰

피경훈**

<목 차>

1. 전환의 심연(深淵)
2.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3. 체제의 안과 밖
4.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기원

1. 전환의 심연(深淵)

재미학자 왕반(王斑)은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에서 ‘문혁’ 종결 이후로의 전환, 즉 개혁 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분명한 시작(unclear beginning)’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¹⁾ 이는 곧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정확히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환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듯 1981년 제11차 3중 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이하 《결의》)가 공식화 된 이후, ‘문혁’은 ‘십년동란(十年浩劫)’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문혁’은 철

* 본 논문은 2016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조교수

1) Ban Wang, *Illuminations from the Past*(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 93.

저하게 봉인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문혁’에 대한 기억이 봉인되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공식적 명령과 그 기록’에 의해 ‘문혁’이 철저하게 ‘혼란’과 ‘무질서’의 이름으로 규정되었고, 그것을 ‘공식적 명령’의 범주 밖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봉인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혁’의 유령은 끊임없이 중국 당대사(當代史)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문혁’을 포함한 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회주의 단계’를 어떻게 규정 및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문혁’ 이전과 이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선명한 단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표출하고 있듯, ‘문혁’의 역사적 위치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당대’라는 개념을 불안에 빠뜨리는 ‘진원(震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²⁾

‘문혁’이 이처럼 당대사의 일관된 흐름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문혁’의 ‘종결’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비록 앞서 언급한 1981년의 《결의》가 ‘문혁’의 종결을 표지하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상 ‘문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³⁾ 또한 이렇게 ‘문혁’의 종결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곧 그것이 ‘문혁’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문혁’의 종결이 가능케 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기원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1973년 광둥(廣東) 지역에서 등장한, 일명 ‘리이저 대자보(李一哲大字報)’라는 불리게 되는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에 관하여(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라는 제목의 대자보는 ‘문혁’의 임계점이 무엇

2) ‘문혁’ 전후 역사적 단절과 연속의 문제에 관해서는 Tang Tsou, The Historical Change in Direction and Continuity with the Past, *The China Quarterly*, no. 98(Jun, 1984) 참조.

3) ‘문혁’의 ‘종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Han Shaogong, Why did the Cultural Revolution End?, *Boundary 2*(2008) 35:2와 Alessandro Russo, “How did the Cultural Revolution End? The Last Dispute between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1975”, *Modern China* 39, no.3(2013):239 참조.

인지 그리고 그러한 임계점 앞에서 중국의 지식 청년들이 어떠한 사유의 경로를 통해 '문혁'의 막다른 골목을 돌파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주류 담론 속에서 '리이저 대자보'는 여전히 억압된 서사이자, 전환기를 정초한 표지이면서도 여전히 본격적으로 탐색되지 못한 '심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심연으로 만든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기원을 정초한 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리이저 대자보'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우선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고, 그러한 검토에 기반해 '리이저 대자보'가 정초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기원'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서두에서 언급했듯 본고의 주제인 '리이저 대자보'는 '문혁' 이후의 중국, 즉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⁴⁾ 때문에 본 대자보의 등장은 곧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결절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절점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한 '리이저 대자보'의 강렬한 정치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른바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기표는 그 기의를 억누른 채 매우 느

4) 최근까지의 논의에서 '리이저 대자보'는 주로 '문혁' 시기의 '이단사조'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류귀카이(劉國凱)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문혁'은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미 종결된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리이저 대자보'를 '문혁'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리이저 대자보'의 의미를 관방서사, 즉 '문혁'을 1966년에서부터 1976년까지로 보는 '문혁 10년 설'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뒤이어 논의하게 될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는 이미 '문혁 이후'를 사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혁" 시기의 이단사조로 분류될 수 없다. 류귀카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劉國凱 著, 《人民文革論》(香港: 博出版, 2006) 참조.

순하게 그리고 상당히 탈정치화된 개념으로서 전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주제를 좀 더 폭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개념 혹은 테제 자체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단계 혹은 국면은 비단 중국적 맥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에트의 붕괴 및 해체와 함께 그로부터 분리된 동유럽 국가들 역시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결국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비단 중국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개념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논의하는 방법론 자체가 이론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크리스 한(Chris Hann)은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주제를 논함에 있어 그 이전 단계인 ‘사회주의’를 ‘타자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현 상태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적 단계를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 단계는 일종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⁵⁾

‘사회주의’를 타자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의 주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포스트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들이 전자를 시민사회의 태동으로 규정하고 후자를 시민권이 말살되었던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단순히 ‘시민사회 대 통제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의 층차에서 나타나는 합법성(legitimacy)과 도덕(moral)의 문제로 그 시각을 한층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치열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쟁투로 바라 봐야 한다는 캐롤린 험프리(Caroline Humphrey)의 주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험프리는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카테고리 세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5) Chris Hann, Farewell to the socialist ‘other’, in Edited by C. M. Hann, *Postsocialism*, Routledge, 2002, p.8.

6) 같은 책, p.10.

언급한다. 첫째, 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 급작스럽고 총체적인 변화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는 실천으로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도 은밀한 이데올로기이자 쟁론으로서 존재했으며, 셋째,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근원적인 단일성을 유지했던 존재로서, 공개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그 지배적인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는 레닌주의에 기반했다는 것이다.⁷⁾

험프리의 주장은 본고에서 논하려고 하는 '리이저 대자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험프리의 주장처럼, '포스트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단계에서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단계, 혹은 사회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구별되는 사회 형태로의 진입이지만, 그러한 단계를 급작스럽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정지되는 상태로 규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분명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실제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진행된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과정인 것이며 그렇다면 '리이저 대자보'의 출현과 그 의미 역시 투쟁과 쟁론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과 험프리의 주장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시좌는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특정한 전환의 과정을 탈역사화, 탈정치화시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라는 과정 속에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라는 이분법적 과정이 존재하는 것도,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정지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그것을 대체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이론적, 정치적 관계의 조정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혹은 혼합' 또는 '사회주의적 가능성으로의 회귀'라는 이분법적이고도 거시적인 도식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예컨대 아리프 딜릭(Arif Dirlik)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고찰'

7) Caroline Humphrey, Does the category 'postsocialist' still make sense? in Edited by C. M. Hann, *Postsocialism*, Routledge, 2002, p.12.

(Postsocialism?: Reflections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특정한 상황이 중국적 맥락에서 그리고 전지구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딜릭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에 있어 매우 곤란한 개념이다. 1982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그리고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개념이 제기된 이래,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달성되어야 할, 즉 중국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여전히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 상당한 방해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개념에서 혁명적 색채를 탈각시킴으로써 중국이 ‘문혁’ 혹은 그 이전인 195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⁸⁾

이러한 현실에 맞서 딜릭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험이 오히려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alternative)으로서 새롭게 전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포스트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를 새롭게 그리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사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서 제안하고자 한다.”⁹⁾ 요컨대 딜릭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험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으로서 사유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문혁’ 이후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폐기된 구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개념의 혁명적 요소를 재평가함으로써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명되

8) Arif Dirlik, Postsocialism?: Reflections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Edited by Arif Dirlik and Maurice Meisner,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M. E. Sharpe Inc., 1989, pp.364~366 참조.

9) 같은 책, p.380.

어야 한다는 딜릭의 주장은 매우 참신한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딜릭의 이러한 주장은 그 사상적,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채 단순히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함유하고 있는 혁명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이론적 선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딜릭은 ‘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주목할 뿐,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딜릭의 주장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그것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쇠신함으로써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중국의 실제적인 사회주의 경험이 작금의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예컨대 사미르 아민(Samir Amin)의 경우, ‘문혁’ 이후의 중국이 자본주의이나 사회주의이나(capitalism or socialism?)고 묻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질문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한다. 아민은 중국이 ‘문혁’ 이후에도 1950년대 이후부터 추구했던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자본주의 노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아 왔다고 주장한다.¹⁰⁾

아민이 중국의 경험, 즉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성공적 전환에 있어 주목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이지도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은 ‘국가의 계획’ 그 자체다. 그는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이 전혀 도시화 되어 있지 않았던 6억 명의 사람을 생산적이고 산업화된 도시화의 과정 안으로 끌어들었고, 이러한 결과는 계획 때문이지 시장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현재 진정으로 주권에 근거한 통제 가능한 생산 시스템(a truly sovereign productive system)”을 갖추었다 말하고 있다.¹¹⁾

요컨대 딜릭과 아민의 시각은 ‘사회주의’를 모종의 잠재력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 경험’을 갖춘 중국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일

10) Samir Amin, China 2013, *Monthly Review*, volume 64, Issue 10.

11) 같은 글.

방적인 공세를 막아낼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때문에 사회주의는 서구적 경험과는 다른 이른바 ‘대안적 현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중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경험’이 대안적 가능성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다만 본고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내포된 전환의 의미가 단순히 사회주의적 경험의 가능성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충돌과 파열음의 의미를 현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 사회주의’를 모종의 전환기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그 전환의 의미를 길어내는 시각은 더욱 정밀해져야한다. 단순히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쇄신에 기반해서는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라는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국학자 왕후이(汪暉)의 관점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을 ‘마르크스주의의 변용’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층 세밀해진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후이는 <중국 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라는 글에서 ‘사회주의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을 ‘현대에 저항하는 현대성(反現代的現代性)’이라는 개념으로 집약시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은 “현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서구 현대화가 노정한 부정적인 역사적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¹²⁾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때문에 중국 사회주의 노선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혁’의 종결은 곧 이러한 ‘현대에 저항하는 현대성’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 노선의 특징을 ‘현대에 저항하는 현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한 후, 왕후이는 ‘문혁’ 종결 이후 개혁 개방 노선으로의 전환을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 실용적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www.kci.go.kr

12) 왕후이 지음,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경기 파주: 창비, 2003), 49쪽.

문혁 종결 이후 중국의 개혁적 사회주의는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이자 실용주의적 마르크스주의다. 개혁 이전의 현대화와 다른 점은 중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주의 개혁의 주요 특징이 바로 경제영역의 시장화인데, 이는 중국 경제와 사회·문화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접목시켜 중국사회를 전지구적 시장사회로 편입시킨다. 개혁 이전의 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개혁 이후의 사회주의는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이기는 하지만 개혁 이전의 사회주의가 지니고 있던 반현대성적 경향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¹³⁾

왕후이가 보기에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은 마르크스주의의 탈혁명화를 통해 추동되었다. 사회주의 중국을 떠받쳤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노선에 대한 경계와 초극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반면, 개혁 개방 시대에 접어든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그 혁명적 요소가 탈각된 채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왕후이는 이후 <탈정치화된 정치(去政治化的政治)>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장 및 세밀화 시키면서, '문혁'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단계로의 전환을 '이데올로기 영역의 탈이론화' 그리고 '당내 노선 투쟁의 종결'이라는 개념으로 집약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 영역의 탈이론화'와 '당내 노선 투쟁의 종결'로 대표되는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제 개혁이 중심이 되면서, 당의 사업 전체가 ('혁명'과 '건설'이 아닌) '건설' 쪽으로 옮겨가 버렸다. 이 두 가지 정책적 선택은 문혁 후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권력투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하여, 1970년대 말에 확실히 민심을 크게 얻었다. (중략) 그런데 이 전략적 선택이 결국 '탈정치화된' 정치노선으로 변해버리자, 이론적 논쟁이 정치문화에서 점차 사라졌을 뿐 아니라 1960년대에 등장한 정치와 국가 사이 및 정치와 정당 사이의 분리와 긴장도 철저히 사라졌다.¹⁴⁾ (중략) (1970년대 중반 - 인용자) 중국공산당 내에서 중국 사회의 성격,

13) 같은 책, 50쪽.

14) 왕후이 지음,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옮김, 《탈정치 시대의 정치》(경기: 파주, 돌베개, 2014), 93~94쪽.

상품, 노동, 생산력, 가치법칙, 노동에 따른 분배, 부르주아적 권리 등의 문제를 놓고 벌인 격렬한 이론 논쟁과 정치투쟁에서는 이후 중국의 개혁이 직면하게 될 기본적인 이론적 문제들까지 이미 다루고 있었다. (중략) 분명 1975년 이론 논쟁은 이후 등장하는 사회주의적 상품경제라는 개념을 이미 배태하고 있었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이론의 많은 중요한 전제들을 제공해주었다. 15)

요컨대 왕후이가 ‘포스트 사회주의’ 단계로의 전환에 있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문혁’ 종결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당 내부’에서 상당한 이론적,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왕후이가 보기에,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탄생은 결국 이러한 ‘당 내부’의 노선투쟁의 결과인데, 문제는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이후, 그러한 투쟁이 ‘국-당 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응결되어 사회적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왕후이의 관점을 ‘개혁 개방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서술’로 보았을 때, 그 시각의 세밀함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왕후이는, 앞서 제시했던 험프리의 주장처럼,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을 단순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내 노선 투쟁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왕후이의 관점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여전히 ‘당 내부의 노선 투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왕후이는 “내가 보기에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이 대토론(개혁 개방 노선에 관한 당내 노선 투쟁 - 인용자)은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고도의 이론적 성격을 지닌 마지막 정치 논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당의 범주 자체를 이탈하려 했던 시도’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혁’ 이후 중국공산당은 한편으로 ‘문혁’을 ‘철저히 부정’했지만 다른 한편으

15) 같은 책, 95쪽.

로 중국 혁명과 사회주의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지 않았고, 특히 이 현대적 전통의 역사적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오쩌둥 사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중략) ‘문혁’을 철저히 부정하고 ‘혁명과 고별’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세기 중국의 역사적 유산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은 분명 향후 정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¹⁶⁾

왕후이는 중국공산당이 이끈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유산’과 그 총결산인 ‘마오쩌둥 사상’을 중심축으로 ‘탈정치화된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언급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현상황, 즉 ‘탈정치화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여전히 중국공산당을 중심축으로 한 역사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능성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본고의 범주를 넘는 문제이다. 하지만 왕후이의 서술 속에서 ‘문혁’은 그 자체로 부정된 역사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문혁’의 과정 중 배태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범주를 초월하려 했던 시도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¹⁷⁾

그렇다면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과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찰스 테일러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등장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은 그 기원의 흔적을 담고 있다.”¹⁸⁾고 말한 바 있다. 테일러의 이와 같은 언급은 곧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종의 전환점에는 그 전환을 발생시킨 경험과 사유의 형식이 깊이 각인됨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 인민 봉기에 대한 찬양을 그 역사 속에 일종의 전례(典禮)로서

16) 같은 책, 158쪽.

17) 실제로 왕후이는 <세계 정치의 대표성 위기와 포스트 정당정치>라는 글에서 ‘당정(黨政)’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현실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처럼,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라는 심금을 초월했던 계기들에 대해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왕후이의 관점은 같은 책, 228쪽 참조.

18) 찰스 테일러 지음,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서울: 이음, 2011), 194쪽.

남겨 놓았던 것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났던 전환의 경험은 일종의 구조로서 반복되는 것이다.

본고는 '리이저 대자보'가 상상했던 전환의 열개를 드러내고, 그 사유의 형식을 관방 서사와 대비시킴으로써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을 정초시켰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그 기원의 흔적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을 정초한 '불분명한 시작'이 어떠한 권력의 응시를 통해 '말해져야 할 것'과 '말해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3. 체제의 안과 밖

“결국 명시적인 언설은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의 억압적인 현존일 뿐이다. 그리고 이 말해지지 않은 것은 말해지는 모든 것을 내부로부터 파내는 구멍인 것이다.”¹⁹⁾ 푸코는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의 경계를 권력 관계로 파악한다. 모종의 언설 속에서 '말해진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거나 자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억압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반대로 '말해지지 않은 것'은 그러한 권력에 의해 획득된 자명성과 타당성을 내부로부터 허물어가는 반(反)권력의 계기가 된다.

푸코의 이와 같은 사유는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분석과 함께 더욱 입체적인 것이 된다. 라클라우는 사회란 총체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체화하려는 시도가 불가피함을 언급한다. “모든 담론은 담론성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한 시도, 즉 차이들의 흐름을 억제하고, 중심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구성된다.”²⁰⁾ 결국 라클라우의 관점에 따

19)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서울: 민음사, 2002), 49쪽.

20)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상탈 무페 지음, 이승원 옮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서울: 후마니타스, 2012), 205쪽.

른다면, 푸코가 언급했던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의 비결정성 속에는, 그러한 비결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력의 응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을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쟁투의 과정으로 보려는 본고의 목적에 있어 푸코와 라클라우의 관점은 그 전환의 과정을 정치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좌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만약 ‘사회주의 중국’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정치 수사학적 관점을 통해 그 진통 안 내재된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을 준별했던 ‘문혁’을 둘러싼 담론들과 그 수사학의 권력관계를 그려내야 하는 것이다.

‘문혁’의 종결을 둘러싼 수사학의 권력관계를 그려내기 위해, 우선 그러한 수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즉 ‘문혁’이 마주했었던 임계점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젝(Slavoj Žižek)은 ‘문혁’의 실패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문혁’의 실패는 정확히 새로운 일상생활의 형식을 창조하는 것의 실패였다.”²¹⁾고 언급한다. 요컨대 ‘문혁’은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만 기능했을 뿐,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백승욱은 이러한 ‘문혁’의 임계점을 ‘중앙문혁 소조장(中央文革 小組長)’으로서 ‘문혁’을 이끌었던 천보다(陳伯達)가 가 닿았던 ‘아포리아’로 설명하고 있다.

그(천보다 - 인용자)는 자신이 ‘무정부주의’라고 부른 곳 앞에서 멈추어 섰다. 파리코문에 따른 정치가 ‘스스로의 해방’을 주도하는 서로 대립되는 세력들의 ‘병존’을 넘어선 ‘난립’과 ‘적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하나는 다른 하나에 대해 어떤 이론적·실존적 우위에도 설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 (중략) 그는 ‘폭력의 악무한 또는 폭력의 질적 비약’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적으로 멈추어 섰다.²²⁾

21) 슬라보에 지젝 저, 박정수 역, 《읽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서울: 그린비, 2009), 310쪽.

22) 백승욱 지음,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서울: 그린비, 2012), 275쪽.

‘문혁’이 그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 닿게 된 임계점은 결국 무정부적 혼란이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문혁’ 막바지의 상황이 무정부적 혼란이라는 것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아노미적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리이저 대자보’²³⁾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혁’이 임계점에 가 닿을 무렵의 가장 큰 문제는 아나키적 상황이라기보다 권력을 장악한 특권 계층의 권력 남용이었다.

신자산계급(新資產階級)의 점유방식의 본질은 곧 생산원료의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조건 하에서,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혹은 사업의 지도자들이 무산계급의 재산과 권력을 자산계급의 면모에 맞추어 재분배를 실행할 때, 그들이 그러한 재산과 권력에 대해 새로운 신자산계급적인 사적 점유의 방식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중략)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몇몇 지도자들이 당과 인민이 특별한 권리를 부풀려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으로 삼고, 그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확대시켜 특권 교환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뒷문을 열어주어’ 그 자제들이 정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세습적 지위를 누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의 사익이 사회주의 사업의 방향으로 둔갑하여 종파주의적인 노선을 실행하여 인민의 이익과 구별, 상반되는 ‘신흥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²⁴⁾

1974년 11월 10일 광저우(廣州)에서 등장한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에 관하여>라는, 일명 ‘리이저 대자보’²⁵⁾라고 불리는 대자보는 당시 중국의 가장 문제점으로 특권 계층의 형성을 꼽고 있다. 현대 법치 국가의 가장 큰 덕목은 “인간과 특정한 개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효력을 갖는 것”²⁶⁾이다. 요컨대 ‘법치’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권력 집단에 의한 자의적 법률의 적용이

23) ‘리이저 대자보(李一哲大字報)’의 ‘리이저’는 세 명의 이름, 즉 리정텐(李正天), 천이양(陳一陽), 왕시저(王希哲)의 이름을 합쳐 만든 것이다. 때문에,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리이저 대자보’ 자체의 내용을 논하는 한에서는 ‘리이저’를 하나의 명칭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4) 李一哲, <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 香港中文大學學生會 編 《民主中華》(香港: 香港中文大學學生會·遠東事務評論社, 1986), 55쪽.

25) ‘리이저 대자보’는 광저우의 鬧市區 北京路口에 등장한 대자보로 총 2만 6천자, 67장에 달하는 대형 대자보였다.

26) 카를 슈미트 지음, 김도균 옮김, 《합법성과 정당성》(서울: 도서출판 길, 2015), 13쪽.

아닌 법률 자체의 평등하고도 투명한 집행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리이저 대자보’는 ‘문혁’ 기간 중 ‘신귀족 특권계층’이 생겨난 원인을 ‘린바오 체제(林彪體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이 ‘체제’란 말인가? 그것은 곧 사물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전체(全體), 즉 총체적 시스템을 말한다. 린바오 체제는 린바오가 만들어 낸 일련의 이론, 강령, 노선, 방침, 정책, 방법, 당풍(黨風), 학풍, 문풍, 작풍 등을 포함하고, 정치, 법률, 군사, 경제, 문화교육 등의 각 영역에서 당중앙, 마오주석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민을 해하고, 전국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6년 전, 린바오 체제가 확립되었고, 마오주석의 그것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대체해 버렸다.²⁷⁾

위의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체제’라는 개념이다. 부제인 ‘사회주의적 민주와 법제에 관하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는 계급투쟁 일변도로 치닫고 있던 ‘문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식을 단순히 계급투쟁이 아닌 ‘체제’, 즉 ‘제도’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조류(反潮流)’, 즉 극좌적 움직임에도 반대한다.

인민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현체제의 문제점의 근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은 린바오 체제를 향하고 있다. 그들 중 누구도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과 정책에 미움을 표현한 이는 없다. 오히려 그들은 마오 주석의 노선과 정책을 왜곡하고 방해한 린바오와 그 체제의 기득권자들을 미워한다. 인민대중은 민주를 원하고, 사회주의 법제, 인민대중의 혁명의 권리와 인신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원한다. (중략) 당신들이 린바오 체제를 위해 고통을 치고 있을 때, 그 체제에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조금의 민주라도 허락한 적이 있었던가? 당신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참혹한 투쟁과 체포뿐이었다!²⁸⁾

인홍바오(印紅標)가 분석했던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는 이성과 현실을 결합하려 했고, 때문에 ‘신홍 귀족’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극좌’ 노선에도 반대했

27) 李一哲, <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 香港中文大學學生會 編 《民主中華》(香港: 香港中文大學學生會·遠東事務評論社, 1986), 57쪽.

28) 같은 책, 74~75쪽.

다. 다시 말해 ‘리이저 대자보’는 경제 발전과 인민의 복지후생마저 부정하는 극좌 노선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⁹⁾ 인홍바오의 분석대로, ‘리이저 대자보’의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목 받아온 부분은 ‘법제’의 측면, 즉 물리적인 ‘투쟁’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제도’에 주목했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팔테마(Lauri Paltmaa)는 ‘리이저 대자보’가 ‘무산계급 대 자산계급’이라는 이분법적 계급투쟁을 종식시킨 ‘이성적 정치 체제(rational institution)’를 추구하려 했다고 평가했고³⁰⁾ 결국 ‘리이저 대자보’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자의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계급 정치 투쟁을 벗어나 이성적인 합리적 제도로의 움직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이저 대자보’가 제시한 ‘제도’라는 쟁점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도’의 정초라는 사건이 그것이 발생하는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제도의 정초가 기존의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리이저 대자보’가 정초하려고 했던 ‘제도’의 의미는 그것이 기존의 정치체제, 즉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의 층위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다.

르포르가 언급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내핵은 곧 “통치자들로 하여금 권력을 전유하거나 체현하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³¹⁾ 르포르의 이러한 언급은 곧 현대 민주주의 핵심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은 결국 영원한 권력의 공백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 비추보았을 때, ‘리이저 대자보’가 구상하고 있는 ‘민주’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우리의 권력은 누가 준 것인가?’ 인민이 준 것이다. 우리의 간부들은 권력자가

29) 印紅標 著, 《失蹤者的足跡》(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393~394쪽.

30) Lauri Paltmaa, “The Democracy Wall Movement, Marxist Revisionism, and the Variations on Socialist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2007): 53.

31) 클로드 르포르 지음, 홍태영 옮김,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서울: 그린비, 2015), 30쪽.

되어선 안 되고 인민의 충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한 사람의 지위가 바뀌면 그가 최대다수의 이익을 위하는지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지 엄중하게 검증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노력 이외에, 인민대중의 혁명 감독이다. 대중운동은 혁명을 일으킨 자가 혁명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원천이다. 그렇다면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의 각급 간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한 어떤 간부가(특히 중앙기관의 고급 간부)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인민이 '수시로 그들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제4차 인민대회'는 응당 이러한 문제에 답해야 할 것이다.³²⁾

'리이저 대자보'가 담고 있는 '민주'의 의미에 관해 기존의 논의는 그것이 '인민의 직접적인 통치'라는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컨대 백승욱은 "리이저 대자보가 내세운 '법제'는 결코 제정된 기존법을 따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 인민이 '권리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을 이미 담고 있다."³³⁾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는 당과 간부에 대한 '감독의 권리'와 '소환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을 뿐, 당과 간부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리이저 대자보'는 "우리는 '제4차 인민대회'가 당의 사회주의 역사 단계에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며, 법의 적당한 형식을 통해 체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책략은 당의 생명이며, 당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는 응당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³⁴⁾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리이저 대자보'에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정체(政體)' 자체를 거부, 부정해야 한다는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리이저 대자보'가 주장하고

32) 李一哲, <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 香港中文大學學生會 編《民主中華》(香港: 香港中文大學學生會·遠東事務評論社, 1986), 79쪽.

33) 백승욱 지음,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서울: 그린비, 2012), 230쪽.

34) 李一哲, <關於社會主義的民主與法制>, 香港中文大學學生會 編《民主中華》(香港: 香港中文大學學生會·遠東事務評論社, 1986), 80쪽.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체제의 ‘회복’이며, ‘민주’의 의미 역시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 내부에서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이저 대자보’가 주장했던 것은 결국 ‘중국공산당 일당독제’라는 당시의 정체를 보존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수정주의적 체제의 구축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면밀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제’의 정치적 의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리이저 대자보’가 당시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체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이저 대자보’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법률’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한데 문제는 이와 같이 ‘리이저 대자보’가 주장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최상위의 법, 즉 ‘헌법’을 둘러싼 투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의 외부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에 투쟁은 헌법이나 법의 틀 밖에서, 즉 ‘무기’의 폭력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³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법의 정초 그 자체는 오히려 법 밖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리이저 대자보’가 역설하고 있는 ‘체제’의 의미가 수정주의적인 것인가를 논함에 있어 이와 같은 법률과 체제의 정초에 수반되는 물리적 폭력, 즉 기존의 체제를 초과하려는 투쟁의 시도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리이저’라는 명칭이 세 명의 이름을 혼합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다시 말해, ‘리이저 대자보’의 관점은 이후 그것을 함께 쓴 3명의 인물인 ‘리정텐(李正天)’, ‘왕시저(王希哲)’ 그리고 ‘천이양(陳一陽)’으로 각각 분화되는데, 특히 리정텐과 왕시저는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의 사망 후 발생한 4월 5일 ‘텐안먼 시위’를 거치면서 법률과 체제의 의미에 관한 관점의 분기를 보여주고 있다.

35) 칼 슈미트 지음, 김효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경기 파주: 살림, 2012), 62쪽.

왕시저는 1979년 9월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위한 분투>라는 글에서 중국공산당이 관료화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마오쩌둥 동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귀족 계층의 형성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고 ‘관료 계급’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오쩌둥 동지가 그의 이론적 사고에 있어 영웅적인 개인에 의해 역사가 형성된다는 관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당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전환시킨다는 레닌의 생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중략) 그는 당과 국가의 운명이 최고위층 인사들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레닌은 당과 국가의 운명은 그 통치권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의 통치에 의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오쩌둥 동지의 이론적 실수는 불가피하게 당의 지배권이 몇몇 지도자들의 지배권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³⁶⁾

왕시저는 우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사회주의 테제의 충실한 이행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유고슬라비아의 사례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공허한 선전이 아닌 실제적인 제도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기에 사회주의의 관료화 경향을 막아낼 수 있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고슬라비아의 동지들 역시 사회주의적 민주가 가장 통합적인 민주이며, 확장된 서구 민주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공허한 선전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를 요구한 인민을 희생시키기 위해 공허한 선전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민주를 위한 가장 견결한 경제적 조직적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는 특정한 법의 적용 없이 사회에 부과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관계와 경제적 토대로부터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³⁷⁾

36) Wang Xizhe, *Strive for the Class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Edited by Anita Chan, Stanley Rosen and Jonathan Unger, *On Socialist Democracy and the Chinese Legal System*, East Gate Books, 1985, p.142.

37) 같은 책, p.145.

이러한 인식 하에서 왕시저는 “현재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위한 분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장애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³⁸⁾라고 언급한다. 그의 이러한 언급을 앞에서 제시한 당과 국가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적 노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읽는다면, 그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제도의 정립에 있어 그 권력의 최종 심급, 즉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들은 그들의 위대한 역사적 감각과 창조성을 통해 ‘4·5 텐안먼 사건’의 비밀을 밝혀 주었다. 그것은 당의 행정 권력에 대한 장악이 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이것은 특정한 조건 속(‘4인방’의 간섭과 같은)에서 당의 행정 권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식을 망각하게 하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³⁹⁾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왕시저는 당이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형식을 유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형식 하에서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은 인민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시저는 민주와 법의 통치가 오직 코민의 자기 통치에 의해서만 비로소 꿈에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⁰⁾ 결국 왕시저의 관점에서 법과 민주를 떠받치는 최종 근거는 당이 아닌 인민 자신에 의한 혁명이 아닌 ‘통치’, 즉 법률과 제도의 구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왕시저는 1980년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장 및 체계화시킨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본 글에서 왕시저는 1949년 이후부터 ‘문혁’에 이르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총괄하고, ‘문혁’의 성과로서 인민의 직접적인 통치에의 의지를 제시한다.

38) 같은 책, p.151.

39) 같은 책, p.155.

40) 같은 책, pp.155~156.

1976년 4월 초순 한식날 부슬비 내리는 텐안먼 광장에 마오쩌둥이 ‘인민 영웅은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친히 쓴 기념비 아래에서 중국역사상 위대한 혁명 군중의 운동이 개시되었다. 여기에서 텐안먼 사건(당시 수십만의 민중이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고 마오쩌둥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군대에 의해 진압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기념비에 꼭 차게 붙인 종이 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시(詩) 구절인가? 천만에! 그것은 투표용지였다. 텐안먼 사건은 공개적인 여론조사였으며 진정한 공민투표였다. 우리나라는 ‘인민공화국’ 아닌가? 맞다. 헌법에 그렇게 써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민공화국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의 의사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형식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략) 중국 인민이 만약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찬성표를 던지고 누구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는 명백하였다. ‘4·5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중국 인민이 보통선거의 형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⁴¹⁾

결국 왕시저가 분석한 ‘사회주의 중국’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보통선거’다. 왕시저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서 ‘문혁’의 최대 성과를 “인민대중, 특히 청년들이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官)을 두려워하는 전통과 결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인민 대중이 직접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보통선거권’의 확립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왕시저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의 급진성을 띠고 있었는가는 여전히 모호하다. 일견 왕시저의 주장은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정치적 변혁에의 기대는 여전히 중국공산당에 대한 기대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겐 확실히 개량주의적인 면이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개량주의는 다음의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은 일반적인 때때 부르주아 혁명당 또는 농민혁명당이 아니라 철저한 혁명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

41) 王希哲, <毛澤東과 문화대혁명>, 柳世熙 編 《오늘의 中國大陸》(서울: 한길사, 1984), 79~80쪽.

는 당이다. 우리는 오늘날 일개 사회, 일개 국가 및 일개 정치 단체에 대해 이데올로기와 전통이 얼마나 큰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보아왔다. 물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존재란 단순히 현존 경제여건의 존재만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와 역사전통의 존재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존재의 총화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움직인다. 한편으로 그것은 장기간의 혁명전통을 가진 당이며, 이 혁명전통은 인민민주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까지 철저한 혁명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내건 당이다. (중략) 당내 개혁파는 또 다른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과거 20년간, 특히 문혁 10년간의 탄압을 당하여 민중의 고통을 절실하게 체험하였고, 관료제도의 폐단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공산국가의 개혁파보다 강한 의지에 차 있으며 더욱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당내 개혁파가 주도하여 비교적 철저한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⁴²⁾

왕시저가 보기에 중국공산당은 혁명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다. 때문에 그는 인민에 의한 혁명의 가능성을 여전히 중국공산당에게 기탁하고 있는 것이다.

'리이저 대자보'로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위한 분투>를 거쳐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사유의 궤적으로부터 왕시저의 사유가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개량주의적 수정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왕시저는 법과 제도의 새로운 확립을 기존 체제를 넘어서는 '보통선거권의 확립'에서 찾으면서도 그러한 근본적인 개혁의 희망을 다시 '당내 개혁파'에게로 의탁하고 있는 셈이다.

왕시저의 이와 같은 관점은 함께 대자보를 작성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인 리정텐과 구분된다. 리정텐은 1979년 4월 5일 행한 연설에서 '문혁' 시기 자의적으로 적용되던 '공안 6조(公安六條)⁴³⁾를 비판하면서 인민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42) 같은 책, 94쪽.

43) '공안 6조'의 본래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중 공안공작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규정(關於在無產階級文化大革命中加強公安工作的若干規定)>으로 1967년 1월 13일 공포되었다. '문혁' 기간 중 방화, 살인, 무장투쟁 등과 같은 지나치게 과격한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자의적으로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巢峰 主編, 《文化大革命詞典》(香港: 港龍出版社, 1993), 304쪽 참조.

을 위한 사법 개혁을 주장한다.

‘당의 영도 권력’이 국가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을 압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입법체가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수정하기 이전에, 시민들은 당 내부 문건 합법성 그리고 국가의 법과 충돌하는 법령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⁴⁴⁾

리정텐은 위의 연설에서 줄곧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중국 개혁의 성패는 당 그 자체의 합법성 문제가 아닌 기존 시스템 안에서의 올바른 법 집행이다. 이와 같은 리정텐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그의 관점이 왕시저의 그것과는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왕시저의 경우 법과 제도를 떠받치는 합법성의 뿌리가 민중의 자각과 자치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리정텐은 입법과 그것의 적용인 사법의 독립과 같은 제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왕시저와 리정텐의 견해차는 리정텐의 1979년 말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데, 당시 그는 “나는 인민 민주 독재를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고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생각한다. 우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계급적 특권을 위해 그 어떠한 독재도 행할 수 없고, 또 행해서도 안 된다.”⁴⁵⁾라고 언급했다. 뒤이어 리정텐은 프롤레타리아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왕시저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그것은 곧 또 다른 전체주의적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리이저 대자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리이저’ 안건 복권 전모(李一哲案件平反始末)>을 보면, 당시 ‘리이저 대자보’ 사건을 조사했던 당시 광둥성 위

44) Li Zhengtian, Lawless Laws and Crimeless Crimes, in Edited by Anita Chan, Stanley Rosen and Jonathan Unger, *On Socialist Democracy and the Chinese Legal System*, East Gate Books, 1985, p.170.

45) Li Zhengtian, Interviews with Li Zhengtian Comparing Wang Xizhe's Views with His Own, in Edited by Anita Chan, Stanley Rosen and Jonathan Unger, *On Socialist Democracy and the Chinese Legal System*, East Gate Books, 1985, p.158.

46) 상동.

원회 서기 시중선(習仲勳)이 '리이저 그룹'의 성원인 리정텐과 왕시저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반혁명집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리정텐은 "저는 제가 당의 아들, 인민의 아들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당의 영도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에 대해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왕시저는 끝까지 당에 대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항했고, 이에 대해 시중선은 수차례 리정텐에게 왕시저를 설득할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1979년 왕시저가 광둥사범학원(廣東師範學院)에서 급진적인 연설을 이어가자 시중선은 "왕시저처럼 한다면 비판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⁴⁷⁾

1974년 등장한 '리이저 대자보'에서부터 대자보를 함께 작성했던 지청(知靑)들의 분화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상당히 복잡미묘한 정치적 수사들이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이저 대자보'는 당초 혁명과 파괴 일변도였던 당시의 담론장 안에 '법제'라는, '파(破)가 아닌 '립(立)'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체계에 대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질서가 당시의 정치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재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대자보의 발표 이후 분화되었다. 기존 체계 안에서의 '법치'를 강조했던 리정텐과 달리 왕시저는 '보통선거'를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의 일당 독재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다. 요컨대 왕시저는 기존의 정체(政體) 자체를 문제화함으로써 '문혁'이 창출시킨 정치 공간을 - 슈미트적인 의미에서 - '정치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⁴⁸⁾

47) 시중선의 반응을 통해 리정텐과 왕시저의 태도 차이 그리고 왕시저의 급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리정텐은 중국공산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왕시저는 끝까지 급진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시중선의 회유에도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통해 왕시저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서 보여준 '당내 개혁파'에 대한 기대 역시 '보통선거', 다시 말해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한 합법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李一哲'案件'平反始末>, 中國共產黨新聞網, (<http://cpc.people.com.cn/GB/64162/82819/115225/115240/6866055.html>, 검색일: 2017년 7월 11일) 참조.

4.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기원

‘문혁’ 이후 중국의 현당대사를 총결한 《결의》는 ‘문혁’의 과오를 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와 인민 대중은 정권과 법률의 힘을 통해 이러한(계급투쟁 - 인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계급투쟁을 당과 국가의 중점 사항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타도하는 정치대혁명’을 진행할 이유는 더욱 없다.”⁴⁹⁾

이어서《결의》는 “당과 국가의 정확한 지도 지침, 정책, 그리고 고도의 민주와 완비된 법제가 없다면, 경제, 과학, 문화의 고도 발전은 있을 수 없고 공고한 정권을 갖출 수도 없다. 특히 경제 건설의 문제가 정권의 공고한 기초를 결정한다. 경제현대화 그리고 풍족한 물질 토대가 없다면 국가의 부강함 역시 이룩될 수 없다.”⁵⁰⁾고 언급하고 있다.

법률과 정권의 공고화를 천명한 《결의》가 발표된 것은 1981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의》의 중국 현당대사에 대한 총결은 ‘문혁’을 ‘체제’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했던 ‘리이저 대자보’가 정권 차원에서 흡수된 이후 제시된 것이다. 특히 ‘리이저 대자보’를 작성했던 지식그룹의 분화는 그들이 구상했

48) ‘리이저 대자보’ 그리고 이후 분화된 리정텐, 왕시저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리이저 대자보’의 의미를 곧바로 ‘인민이 권리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한 백승욱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백승욱은 ‘리이저 대자보’를 평가하면서 “대신될 수 없는 정치로서의 혁명”이라는 사고는 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 그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고와 서로 긴밀하게 엮어서 새로운 정치 담론을 형성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리이저 대자보’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급진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 1976년 이후 리정텐과 왕시저의 관점이 분기된 이후, 왕시저의 태도와 글을 통해서 비로소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 자체를 문제 삼고 인민의 정치 참여에의 직접적 권리를 주장하는 관점이 제기된 것이다. 백승욱의 관점은 백승욱 지음,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서울: 그린비, 2012), 230쪽 참조.

49)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輯,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注釋本》(北京: 人民出版社, 1983), 注釋(74).

50) 상동.

던 '체제' 구축의 정치적 의미가 어떠한 정치적 사유의 마지노선을 그려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리이저 대자보'를 작성했던 지식인들은 '문혁'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경험 속에서 '파괴'가 아닌 '질서와 체제'의 필요성을 간파했고, 그러한 시대의식은 이후 그 '질서와 체제'의 의미가 어느 정도로까지 정치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은 《결의》라는 패권적 문건에 의해 덮여 버리고 말았다.

결국 '문혁'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는 '중국 공산당'과 그 합법성의 보존이라는 '정치화'되지 못한 결절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왕후이의 언급과 같이 이 문제는 최근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일종의 '억압된 서사'로 남겨져 있다. 다시 말해 왕후이의 언설 속에서 '재정치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의 한계는 《결의》에 의해 선포된 명확한 한계, 즉 중국공산당의 일당 독재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앞서 인용한 테일러의 주장과 같이 특정한 전환기에 정초된 정치적 패러다임이 제례(祭禮)로서 반복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억압된 서사'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으로의 전환 속에는 분명 당시의 그리고 지금의 정체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패권적인 혁명의 기표에 의해 혁명의 기의의 흔적은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그 혁명의 기의가 과연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온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과 그 기원을 사유하는 내밀하고도 민감한 결절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柳世熙 編, 《오늘의 中國大陸》, 한길사, 1984.
-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2.
- 백승욱 지음, 《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그린비, 2012.
- 슬라보예 지젝 저, 박정수 역,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산탈 무페 지음, 이승원 옮김,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후마니타스, 2012.
- 왕후이 지음, 이육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 왕후이 지음, 성근제·김진공·이현정 옮김, 《탈정치 시대의 정치》, 돌베개, 2014.
- 찰스 테일러 지음,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1.
- 칼 슈미트 지음, 김효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2012.
- 카를 슈미트 지음, 김도균 옮김, 《합법성과 정당성》, 도서출판 길, 2015.
- 클로드 르포르 지음, 홍태영 옮김,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그린비, 2015.
- Ban Wang, *Illuminations from the Pas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Edited by Anita Chan, Stanley Rosen and Jonathan Unger, *On Socialist Democracy and the Chinese Legal System*, East Gate Books, 1985.
- Edited by Arif Dirlik and Maurice Meisner,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M. E. Sharpe Inc., 1989.
- Edited by C. M. Hann, *Postsocialism*, Routledge, 2002.
- Alessandro Russo, "How did the Cultural Revolution End? The Last Dispute between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1975", *Modern China* 39, no.3(2013):239.
- Han Shaogong, Why did the Cultural Revolution End?, *Boundary*, 2(2008) 35:2
- Lauri Paltemaa, "The Democracy Wall Movement, Marxist Revisionism, and the Variations on Socialist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2007): 53.
- Samir Amin, China 2013, *Monthly Review*, volume 64, Issue 10.
- Tang Tsou, The Historical Change in Direction and Continuity with the Past, *The China Quarterly*, no. 98, Jun., 1984.
- 劉國凱 著, 《人民文革論》, 博出版社, 2006.
- 印紅標 著, 《失蹤者的足跡》,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14.
- 香港中文大學學生會 編, 《民主中華》, 香港中文大學學生會·遠東事務評論社, 1986.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輯，《〈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注釋本》，人民出版社，1983.

< Abstract >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of Revolution

- Research on 'Li Yizhe Big Character Poster' and Its Logic of Transition

Pi, Kyung-hoon

The results of the Cultural Revolution were devastating. Countless people died, and the system of the whole Chinese society had been destructed. After these catastrophic disaster, some Chinese intellectuals had come to know that the class struggle, which means that the proletariat should exterminate their class enemy bourgeois, led their society to that catastrophic state, then they finally started to reflect on the fundamental problems beneath the Cultural Revolution. As a result, some intellectuals, such as so called 'the group of Li Yizhe', whose member included Li Zhengtian, Guo Yiyang and Wang Xizhe, posted the big character poster(大字報) on the street of Guangdong Province. This poster's title was "On Socialist Democracy and the Chinese Legal System."

In this poster, Li Yizhe group had fiercely criticized so called Lin Biao's system and insisted that the real problem of Chinese Socialism was not the class struggle, but the re-construction of legal system. Then they offered the propositions to the CCP leaders. At first, Li Yizhe group's purpose was integrated: the guarantee of citizen's legal rights. But after the 'April Fifth movement', which was to venerate the death of prime minister Zhou Enlai, the perspectives about the task of Post Cultural Revolution had been ramified. Li Zhengtian, one of the member of Li Yizhe group, claimed that the most important task after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was to overcome the dogmatic principle of Proletariat Dictatorship, and the independence of juridical branch. In other words, for Li Zhengtian, the main task of reform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realm of CCP's authority

and legitimacy. On the other hand, however, Wang Xizhe, who was also the member of Li Yizhe group, claimed that the aim of the reform was to problematize the political system itself, so the legitimacy of CCP should become a political issue, then, Wang Xizhe proposed the need for the ‘general election.’ We could say that this difference between Li and Wang sharply showed the different attitude of the Li Yizhe group members toward the dictatorship and its legitimacy of CCP.

The meaning of ‘Li Yizhe Big Character Post’ could be said as a knotenpunkt of the transition from the socialism China to the post socialism China. This article’s purpose is to read ‘Li Yizhe Big Character Post’ and the statements of Li Zhengtian and Wang Xizhe, then re-politicize the meaning of post socialism China.

Key words: ‘Li Yizhe’ Big Character Post, Post Socialism, Cultural Revolution, Legitimacy, Chinese Communist Par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27.	2017. 08. 27.	2017. 08. 30.	2017. 09. 11.	2017. 09. 30.